

## 오랑캐의 탄생 Ancient China and Its Enemies: The Rise of Nomadic Power in East Asian History by Nicola di Cosmo

### 제1~2장 고고학적 증거

유목민, 유목생활, 유목문화의 출현에 관한 다양한 설들: 인구과잉, 건조화, 농업과 목축 사이의 노동분화 래티모어의 이동이론: 정주 농경사회가 팽창하면서 초원 가장자리와 오아시스에 거주하던 주변인들에 대하여 ‘밀어내기’를 감행한 결과 유목 목축 생활이 출현. 그라즈노프: 유목생활이 점차 가치 있는 경제활동이 되면서 기원전 8세기에 초원의 여러징기에 거주하는 몇몇 부족들이 유목생활을 채택. **성숙한 유목 목축문화는 이전 농경-목축인들의 기술과 사회, 정치조직 위에서 이루어짐.**

초기 유라시아 유목문화의 발전: 기술상의 진보의 밀접히 연관됨. 말과 마차를 이용한 이동성의 증가. 이어서 더 크고 복잡한 사회로의 진화. 전쟁을 주 임무로 하는 귀족계급의 출현. 장신구의 등장 - 유목상류층의 기호와 사회적 기능의 변화

북중국 초기 유목문화의 시기구분:

1. 기원전 9~7세기(서주 말기~춘추 초기): 묘지부장품 중 마구와 무기(비파형 청동검)가 이전보다 더 많이 포함됨. 중부와 서북부에 비해 동북부가 두드러지게 발전.
2. 기원전 6~4세기(춘추 말기 전국 초기): 전형적인 스키타이 3요소(무기, 마구, 동물 문양 장식품) 출현. 철야금술 보급.
3. 기원전 4세기 중반~3세기(전국 말기): 북방문화와 중국 지역이 ‘접근’. 오르도스 유적. 군사적 상징물이 장신구들로 대체됨. 유목묘지의 특징은 극도로 화려하다는 점. 사회계층의 분화가 심화됨. 새로 발견된 부, 상업. 유목정치구조는 전국 시대에 ‘국가’를 세우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인 혈연집단을 능가하는 정치체제로서 구성됨. 흉노: 권력 중앙화와 정교한 군사적 계급구조를 갖추.

### 제3장 오랑캐를 만들어낸 초기 중국의 역사적 배경

주대에 영역을 의미하는 ‘중국’ 개념과 그 주민을 의미하는 ‘화(華)’ 또는 ‘하(夏)’ 개념이 등장. 중국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기 시작. 기원전 661년 제나라 환공의 재상 관중(管仲): “적과 용은 늑대와 같아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화하의 모든 나라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어느 한 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휴식함은 곧 품어서는 안 되는 독약과 같습니다.” -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됨.

하지만 실제로 당시 중국인들은 중국과 야만인을 문화적 차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데 관심이 없었음. 제후국들이 이적과 연합하여 다른 제후국과 주황실의 친척을 공격. 용인된 규범을 위반하는 제후국들은 이적으로 낙인찍힘. 동주시대에 중국과 야만인 사이의 경계는 끊임없이 변화했음. ‘우리’와 ‘그들’이라는 양극화된 계열에 따라 구분되지 않음.

동주국가들은 정치적, 전략적 목표에 따라 비주 주민들과의 외교관계를 형성. ① 국력을 강

화하고 영토를 팽창하기 위해 비주지역을 정복 ② 국가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평화적 관계 유지 ③ 비주지역을 자국의 행정지역으로 편입 ④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이용. 이방인들에 대한 대우는 철학적 사고나 문화적 경향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 현실에 대한 그때그때의 인식에 의해 결정됨.

기원전 209년 흉노 유목제국이 탄생. 한 왕조는 큰 위기에 처함. 사마천의 사기는 이 상황을 중국 역사의 여명기부터 중국과 유목민이 대결하며 대립적인 양극을 형성했다고 보는 역사모델에 따라 기술. 통일된 북방과 통일된 남방 사이의 양극화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투영됨.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와는 달랐음.

#### 제4장 장성과 말: 역사적 접촉을 시작한 기마 유목임과 증원 국가들

북중국에서 목축문화가 발전하면서 기마 유목귀족이 지배하는 군사사회가 등장. 전국시대 말기 중요한 두 사건: 기병대의 도입, 장성(長城)이라는 군사 시설의 건설. 북방은 명확하게 군사화됨.

기마부대: 조(趙)나라 무령왕. 기마부대의 도입이 유목민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설득력이 없음. 궁극적인 목적은 공격, 유목민을 굴복시키는 것.

장성구축: 진(秦) 이전부터 여러 제후국들은 장성을 구축. 장성 역시 단순한 방어가 아님. 한 국가가 특정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요새를 구축할 목적으로 세워짐. 명대 장성이 몽골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새로 기능하였음에 반해 방어+공격용. 사기를 포함하여 여러 기록에 의하면 장성이 유목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되지 않았음. 오히려 이방인의 땅을 실질적으로 공격한 후에 유목민을 ‘내쫓거나’ 또는 ‘견제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 방어가 공격과 영토팽창 정책보다 하위에 위치.

또한 장성은 초원과 농지, 유목과 농경을 분리하려 세워진 것도 아님. 성벽이 구축된 지점은 농경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 장성은 주변의 비농경 지역을 방어하고 교통로를 확립하고 군대가 이들 지역을 편리하게 순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임.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유목민을 추방하여 지역을 점거하는 것.

“유목민이 중국의 생산품에 경제를 의존하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특히 탄수화물)을 보충하고자 교역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방어 수단으로서의 장성이 필요했다는說(의존이론에 관하여): 스키타이족 같은 고대 유목 사회에서는 유목민들이 농경민들을 자신들의 사회에 통합시킴. 유목사회도 어느 정도 농경을 실행. 또 유목민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공동체들과도 교역할 수 있었음. 만주부터 타림 분지에 걸쳐 오아시스와 강변에 농지가 존재.

#### 제5장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들: 흉노 유목 제국의 등장과 정치적 통일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통일 이전 북방의 증원 국가들은 유목민들을 ‘견제’할수도 있었고

변경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었으며 공격하여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음. 반대로 한나라(기원전 202년~기원후 9년)는 수십 년 동안 흉노족과의 관계에서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수용, 변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도 못하여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목민의 주도권에 복종. 이는 한대의 흉노는 전국시대 말기의 유목민들과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흉노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흉노제국이 중국영토로 약탈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주기적으로 평화를 깨뜨린 데서 군사적 대결이 발생했다” 또는 기원전 209년 흉노제국이 탄생. “곡물이나 사치품 같이 유목민들에게 필수적이거나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생산품들을 군사력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제국을 건설했다” 오히려 유목 영역에 대한 중국의 침입에 대응하여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

흉노제국의 등장과정: 진나라 몽염 장군의 북방 원정 이후 흉노의 목특이 정권장악. 부족연합체로서의 흉노제국 탄생. 위계적인 통치구조 형성. 최고 권력자 선우 혹은 칸 아래 상층 귀족계층이 위치. 선우와 24대신은 최고정치평의회를 구성.. 위기 → 군사화 → 중앙집권화 중국이 북방 초원으로 밀고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위기는 흉노가 더 엄격한 계급사회를 구축하고 더 응집력 있는 군사조직을 창설하도록 이끈 촉매제가 됨. 목특은 최고 지도자인 선우가 된 후 군사적으로 팽창정책을 추진. 정복한 지역과 주변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받음.

기원전 198년 흉노와 한나라 화친 조약 체결. 동등한 외교적 지위를 수용. 양극적인 세계질서의 탄생. 혼인동맹 + 한나라의 흉노에 대한 조공. 정치적으로 한나라는 열등한 위치에 섬. 한나라의 조공을 기반으로 선우는 강력한 조정, 군수물자, 부족의 충성을 유지. 문제(文帝, 179~157 BC)의 통치 시기 흉노제국의 팽창은 절정에 이름. 162년 조약: “선대 황제들이 확립해 놓은 전통에 따라 장성 이북에서 활을 쓰는 국가들은 흉노가 통치하고, 장성 이남에 거주하는 관대(冠帶)를 쓰는 정주민을 중국 황제가 통치해야 한다” 양 세력이 남과 북을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 ‘세력권’을 인정하기로 약속.

## 제6장 평화에서 전쟁으로: 중국은 왜 유화정책을 버리고 무력 교전을 택했는가?

기원전 140년 무제(武帝)가 즉위하면서 외교적 협상과 해결책에 바탕을 두고 50년 간 지속된 한나라의 외교 관계가 끝남. 군사적 해결을 지향하는 국면이 시작됨. 흉노와의 평화조약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 유목민은 계속해서 변경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조공지불은 대가 없는 투자가 됨.

흉노는 평화·화친 조약의 협정조건들을 왜 준수하지 못했을까? 흉노족이 영토 확장을 추구하거나 더 많은 재부를 착취하려 했다는 가정은 근거가 없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나라의 통치구조와는 달리 흉노의 통치구조에서 선우는 영향력 행사에 한계를 가짐. 기본적으로 primus inter pares. 자신을 지지하는 귀족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절대적 권위의 부재. 선우는 강제하거나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었지만 확고하게 확립된 국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강요하거나 국가 관료 기구를 통하여 통제할 수 없었음. 결국 조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이를 비준한 당사자들의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준수될 수는 없었음.

어떻게 보면 화친정책에서 한나라의 목적은 흉노지도자의 대내적 지위 강화를 지원하는데 있었음.

흉노에 대한 공세적인 정책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 1. 한나라 군사력의 강화: 기병대의 창설과 무기의 효능을 개선. 병참과 보급 문제의 해결. 대규모 원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의 영토 안쪽 깊숙이 자리한 지역들을 기습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 2. 북방의 안정에 성공한 후 서역(西域) 정벌. 서역은 흉노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 신장의 오아시스들은 흉노가 중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 농산품과 기타 생산품을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 됨. 한나라는 유목민들로부터 힘과 후원의 원천을 박탈하려 함. 서역에 주천, 장액, 둔황, 무위의 4개군이 설치됨. 기원전 60년에는 서역도호(西域都護) 창설.

## 제7장 초지와 물을 찾아서: 『사기』에 나타난 북방의 민속과 역사

사마천의 사기는 흉노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술. 사마천 이전에 흉노에 관해 기록한 선례가 없었으며, 이후 사마천의 기술방식이 중국 역사서술에서 북방민족과 내륙아시아를 설명하는 모범이 됨.

사마천이 흉노에 관해 역사서술을 하게 된 배경: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통합 흉노제국의 등장. 유목민들이 통합하여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자 한나라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였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면서 흉노는 충분히 고찰할 가치가 있는 문제로 생각됨.

사마천은 개인적인 조사, 여행, 구술자료, 동시대의 문헌 자료와 보고서들, 중국 사회에 살았던 흉노족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흉노에 관한 풍부한 역사적, 민속적 내용을 담은 기록을 남김. 이전 시기나 동시대의 저술이 북방 민족의 종족적, 지리적 실재와 전혀 무관한 형이상학적 이론과 신화적 믿음이라는 구조 속에 갇혀 있었음. 사마천은 도덕적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역사적 증거 자체를 제시.

사마천은 한나라의 의례와 문명이 우월하다는 믿음과 다른 관점을 가짐. 비록 흉노가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거만할지는 모르지만 그들 또한 자신들의 방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 반고(班固)와 대조적: “흉노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금수” 사마천은 유목민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국이 자신의 이웃을 하루 빨리 이해해야 했던 시기, 반고는 흉노의 위협이 덜 위협적이고 중국은 통일 제국으로서의 역량에 더 큰 자신감을 가졌으며, 엄격한 유교적 가르침을 강조하던 시기에 살았음. 유목목축생활, 매장관습, 사회와 법, 군사훈련과 전쟁, 국가의 제사와 의례, 언어 등에 대해 기술.

## 제8장 북방 길들이기: 중국 역사 속에 ‘끼워 맞춰진’ 오랑캐

사마천의 두 얼굴. 사마천은 북방유목민은 중국 역사에 통합시키려 함. 흉노가 출현한 ‘현상’을 이미 알려진 역사적 범주, ‘조작된’ 계보에 끼워 맞춤. 사마천 이전에 중국 역사에서 활약한 이방인들을 선으로 연결시켜 연결선의 끝 부분에 흉노가 등장하도록 함. 흉노의 중

족적 계보를 『사기』 제11권 「홍노열전」의 첫머리에 위치시킴.

이는 새로운 적이 지닌 무서운 특징과 그 위협의 신비스러운 본질을 없애버리는데 이바지함. ‘합리적인’ 역사 해석 수단의 제공. 중국이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문명의 힘 또는 무력을 사용하여 어떻게 오랑캐를 정복하고 북방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었는지 입증하고자 함. 이방인의 위협이 심각하지는 하지만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 중국이 이방 영역으로 진군해 들어가는 것을 ‘명백한 숙명’으로 표현. 맹자. “중국문명의 위대한 선조들이 이방인들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홍노의 조상은 하후씨(夏后氏)의 후손으로 순유(淳維)라고 하였다. 일찍이 요순시대 이전에 산융, 험윤, 훈족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북방 변경, 즉 북만(北蠻)에서 살았으며 가축 떼를 따라 이동하였다. ...”

중국 역사 최초 단계까지 올라가 홍노의 종족 계보를 추적. 한편에 융적과 다양한 기타 집단들, 다른 한편에 중국의 국가들이 있는 구도. 실제로는 두 집단 사이에 분계선을 존재하지 않았고 동주 시대에 중국 국가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연합은 일반적이었음. 그럼에도 사마천은 북방 주민을 중국 국가들과 적대하는 정치적 실체의 대변자로 설정. 신화시대부터 중국이 북방 주민의 위협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자 함.

‘천인상관적’ 우주론: 북방의 유목국가들은 음(陰)의 성격을, 남쪽의 중국 국가들은 양(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